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양현봉*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hbyang@kiet.re.kr



1. 청년창업의 중요성과 추이

창업은 다양한 사업을 창출하고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말 이후 저성장에 따른 실업해소와 신규 고용창출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창업활성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각종 지원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 정부도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경제활력 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창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가 2010년 '청년창업1000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 청년층의 창업 촉진을 위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청년창업은 퇴직 이후 행해지는 생계형 창업과 달리 기술·지식집약적인 분야나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가 산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4~2009 사업체 생성·소멸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4~2009년

* 저자 경력 및 최근 연구: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창업진흥원 이사,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 창업절차 간소화의 성과와 과제(2013), 중소기업 융합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2011),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2011), 창업기업의 행태 및 성과 분석(2010), 기업가정신 육성 및 기업친화정책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방안(2008)

기간동안 연평균 59만 5,336개의 사업체가 창업되어 연평균 21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체 실업자(실업률)가 2008년 77만명(3.2%)에서 2012년 82만명(3.2%)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말 기준 15~29세의 청년실업자가 31만 3,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38.2%를 차지하였으며, 2012년도 청년실업률 또한 7.5%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창업·창직으로서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1인 창조기업 육성, 청년창업1000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창업 정책의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 청년창업 지원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 사후관리 및 지원 인프라 구축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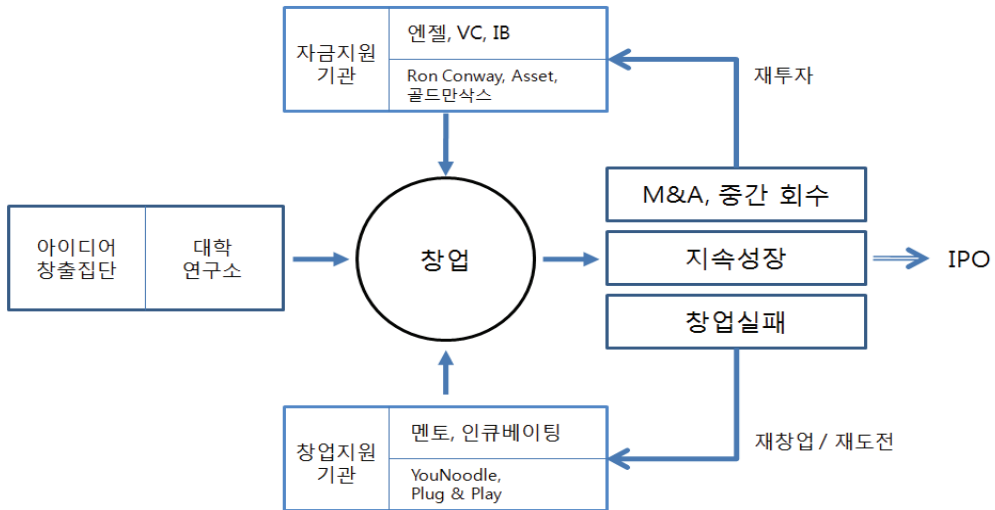
향후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창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창업의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청년창업은 장년 창업에 비해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창업 이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창업의 생태계 구성체계를 살펴보고, 향후 청년창업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측면에서 정부가 대응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강구해보고자 한다.

2. 청년창업 생태계의 구성체계와 문제점

창업생태계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창업자, 대학 등 창업 지원기관, 투자자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지속적으로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관계 부처 합동, 2011). 특히, 창업자의 범위를 청년으로 한정하는 경우 청년창업 생태계라고 부른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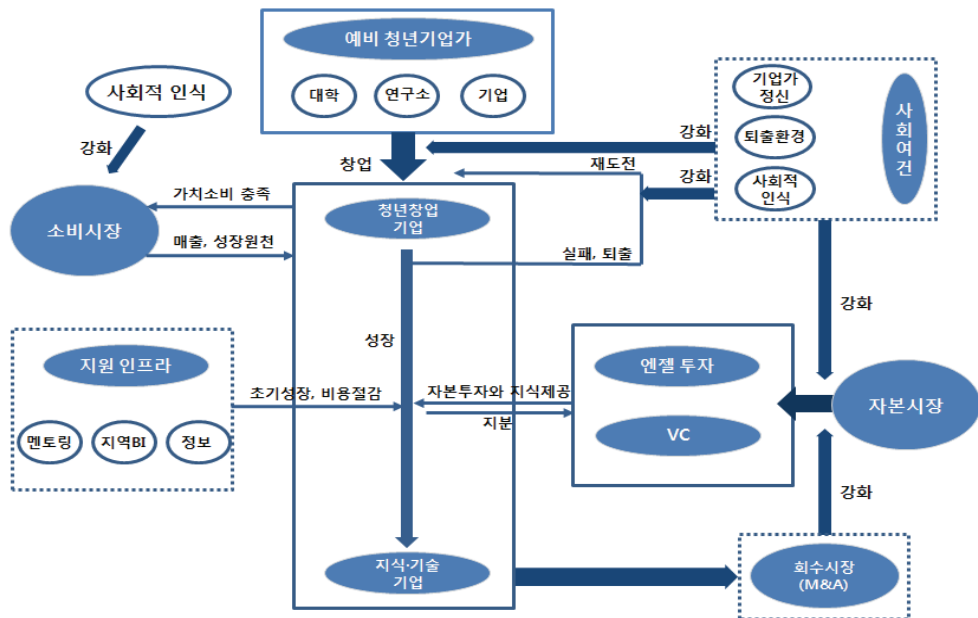
창업생태계를 생물학적 생태계 및 벤처생태계와의 유사성 원리에 의거하여 접근한다면, 청년이 보유한 지식·기술이 경제적 가치로 창출·공유·이전되는 시스템으로 성장·진화·융합 및 분화가 이루어지는 자기증식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임채운, 2006). 청년창업 생태계의 구성요소는 청년기업가, 청년(창업)기업, 엔젤 및 벤처캐피털이며, 주요 환경에 사회여건, 회수시장 환경, 창업인프라 등이 포함되고 기타 환경에는 소비시장, 자본시장 등이 포함된다(<그림 2> 참조). 청년창업 생태계에서는 벤처생태계와 달리 청년기업가를 구성요소(핵심요소)로 편입시키고 회수시장을 주요 환경(인프라 요소)으로 간주한다.

<그림 1> 실무적 관점에서의 창업생태계의 구조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1)

<그림 2> 청년창업 생태계의 구성 체계



자료: 임채운(2006)의 내용을 일부 수정

주: 실선 상자는 구성요소, 점선 상자는 주요환경, 나머지는 기타 환경

청년창업 생태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의 지원정책이 창업교육 등 특정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청년창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창업 이후 성장 단계에서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2000년대 초반 벤처지원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벤처기업, 벤처캐피털(VC), 회수시장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의 정책적 구성에 있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이 대학(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창업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려면 실생활에서의 가치소비와 관련된 창업 아이디어 발굴이 중요하므로 창업교육 대상으로서 일반인 청년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창업 기업은 일반적으로 담보가 부족하여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조달하는 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 인수합병(M&A) 등 중간회수 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초기단계의 청년창업 기업에의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다. 다섯째, 창업 실패 시 기업가가 신용불량자 등으로 전락하여 재도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청년 기업가의 전주기 관점에서 건전한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청년층이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성공모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3.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하여 청년층의 일자리 확보 방안으로 구직에서 창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이 청년층의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2004년부터 메이크마크(Make Your Mark) 캠페인 활동을 추진해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청년창업 붐 조성을 위해 매년 5월 개최하는 중소기업주간행사와 같이 11월중 1주일을 ‘청년기업주간’ (YES Week = Young Enterprise & Start-up Week)으로 설정하여 언론과 공동으로 청년창업성공사례 경진대회, 성공 벤처기업가와 청년창업자의 만남, 엔젤 마트 개최 등 ‘청년창업 붐’ 조성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청년창업을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규 교육과정에 창업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은 중·고등학교, 대학·대학원에서 활용할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관련 교재개발은 교육단계별로 연계성을 갖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부 중심으로 마련하되, 중

소기업청 등 경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창업교육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 담당자(강사)의 확보 및 훌륭한 교육(강의)방법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창업교육 수요에 대비하여 창업교육인력 DB 구축뿐만 아니라, 이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질 좋은 창업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프로세스간 연계강화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창업아카데미 등 창업교육 수료자에 대해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서울특별시) 등의 수혜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수료자 등의 창업보육센터 우선 입주, 창업자금 지원 우대 등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년창업 촉진과 함께 창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창업기업은 사회경험, 사업운영경험 부족 등으로 기존 중소기업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로를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청년창업기업이 경험 부족으로 사업 초기에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창업초기 단계에서 사업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의 성공률 제고 방안으로 ‘청년창업자 멘토링 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의 청년창업1000 프로젝트도 졸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고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기업부도시 CEO의 면책재산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재도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2012년부터 창업실패 시 평가를 거쳐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최대 2,000만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한 바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창업 실패에 따른 재도전 장치가 미흡하며, 사회안전망 또한 너무 협소하여 창업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창업 실패에 따른 면책재산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창업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청년창업 예비자들이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개념검증센터, 청년창업자를 위한 창업보육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대학 및 연구소에서의 첨단기술연구가 미국의 혁신역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파악하고,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기술사업화 기구로서 개념검증센터(proof of concept center)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즉,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독특하고 혁신적인 초기단계 연구에 종자자금(Seed Money)을 제공함과 아울러 기술사업화 자문서비스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점증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 투자의 위험을 줄이고 지식·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창업을 준비하고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업 초기단계부터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청년창업자와 해외 청년창업자간 공동창업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 선정단계부터 글로벌 지향적인 아이템을 선정하고, 중국 등 해외 청년창업자와 공동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창업인턴십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환경에 부응한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관세부처 합동 (2010),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방안”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 _____ (2010), “청년 기술·지식창업 지원대책” 「제9차 국가고용전략회의」
- _____ (2011), “창업성과 점검 및 글로벌 창업 촉진대책” 「제85차 국민경제대책회의」
- _____ (2011), “희망한국,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안)”
- 양현봉(2011),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 _____ (2013), “창업절차 간소화의 성과와 과제, 산업연구원
- 양현봉 외(2008), 「기업가정신 육성 및 기업친화정책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방안」, 산업연구원
- 임채윤 외(2006), 「한국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중소기업청(2012),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 _____, (2013) “2012년 연간 및 12월 신설법인 동향”
- 통계청(2011), “2004~2009 사업체 생성소멸(생멸) 현황 분석”
- Verheul, I.·Wennekers, S.·Audretsch, D.·Thurik, R.(2001), "An Eclectic Theory of Entrepreneurship", Tinbergen Institute Discussion Paper